

담양군 주민생활 혁신 모델 구축 박차

행안부 '혁신사례 확산지원' 선정
 특별교부세 7000만원 확보
 도심속 한평정원·물고임 해결
 지적행정 윈스톱 시스템 구축

담양군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담양식 혁신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안부가

각종 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혁신 사례 중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도심 속, 한평정원(2000만 원)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3000만 원)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2000만 원) 등이다.

군은 도심 속 한평정원 조성사업으로 '한국정원 문화원'과 연계해 군민 주도로 가꿔나가는 정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사업'을 통해 물고임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

축'으로 토지개발 인허가·건축·지적·세정 등과 분할·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용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며 민원을 해결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생명·포용·미래의 담양 실현을 위한 담양식 그린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사회·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담양군 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발굴과제는 군민 참여(협력)·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등 총 3개 분야에 66개 혁신과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폭염에 당도 쑥쑥 장성 차돌복숭아 출하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 아삭한 식감으로 인기 높은 장성군의 특산물 '차돌복숭아'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8월 중순까지 10일간의 짧은 기간에만 공급되는 장성 차돌복숭아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복숭아에 함유돼 있는 아스파르트산은 젓산과 콜레스테롤,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배출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장성이 강해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1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되며 김치냉장고에 두고 먹을 경우 한 달 동안 식감이 변하지 않는다.

당도 역시 최대 14브릭스를 자랑하며 단단한 과육, 아삭한 식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장성지역 복숭아 재배 규모는 112농가 46.3ha에 이른다. 과수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과 강수량을 지녀 매년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아 병해충 피해가 적고, 과실의 당도도 예년보다 높다.



유두석(오른쪽) 장성군수가 차돌복숭아 생산현장을 찾아 잘 익은 복숭아를 들여보고 있다.

생산현장을 찾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차돌복숭아는 한 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맛과 향

을 지녔다"고 자랑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군동면에 복합문화센터 조성...국비 37억원 확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선정

강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 수요맞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는 순수 국비사업으로 군동면 호계리 LH 행복주택 인근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센터 내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을 집중 지원해 유입인구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군동면 호계리에 들어설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국토교통부의 공모 방향에 맞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구성해 왔다.

특히 강진산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 이후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후 제2산단 조성으로 유입인구가 예상돼 사업지구를 군동면 호계리로 결정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군동면 호계리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여러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생활인프라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오는 2023년 LH 행복주택 완공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역 사회적 기업 대표 1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사회적기업 대표 간담회

코로나 장기화 애로사항 청취

강인규 나주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최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 사회적 기업 대표 16명과 소규모 현장 간담회인 '시장과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각 기업 대표들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품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회적 기업 교류공간 마련,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지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교류 활성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공동체 상생과 지역경제 활력소인 사회적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의 고용 안

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복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난해 6월 개소했다.

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지원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사업을 비롯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매월 우선 구매 실적 점검을 통해 청 내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나주지역에는 사회적기업 18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 등 총 2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강사

구중군 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특강을 열고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특강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일상생활, 업무 처리 과정 중 주의해야 할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특강 현장에는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청내 방송으로 특강에 참여했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화순군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기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군 공직 사회에 청렴 문화가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다양한 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